

따 요한복음: 기적만 따르지 말고 사람의 속까지 아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성경말씀: 요2:23-25

드디어 예수님의 공생애 시작, 제자들을 부르심,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심,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서 장사하는 자들을 몰아내심, 하나님의 집에 대한 열심, 이런 자들에 대한 분노, 결국 그 열심으로 십자가까지 가서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심 본격적인 공생애 시작 전에 주의 사항: 앞으로 메시아 기적들을 많이 일으킬 것이다. 그러나 이것들만 의존하지 말라.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너희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 제자들에게 경고 < >

예수님의 전지하심(23-25)

그분은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계시면서 여러 기적들을 행하심, 많은 이들이 기적들을 보고 그분을 믿음(23) 그러나 그분은 그들의 믿음 고백을 믿지 않았다. 그들의 증언에 의지하지 않으셨다(24).

기적을 보고 믿겠다고 반응하는 것과 실제로 그분만을 의지하겠다는 것은 다르다.

즉 그들은 말로만 믿겠다고 하는자들

요한은 예수님의 기적들을 많이 기록하였다. 그것들을 통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도록 하려고(요 20:30-31), 사실 표적들을 보고 믿는 것은 좋은 일, 제자들도 그렇게 시작함

요3의 니고데모 같은 사람: 기적들을 보고 그분을 믿음

그런데 다른 종교 지도자들은 기적들을 보고도 그분을 죽이려 함, 심지어 그분의 기적들은 마귀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함.

기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 주는 증언(요5:36)

동시에 사람들의 마음을 시험하는 도구(12:37), 눈이 열리기도 하고 더 멀기도 함(요9:39-41) 주님은 기적들과 말씀의 진리를 묶으려 하심, 그런데 사람들을 기적만 따르려 함

성경에 나오는 기적이란 무엇인가?

하나님 자체가 기적, 기적의 하나님,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 하나님이 세상과 우주를 이끌어 나가는 두 가지 방법: 섭리와 기적, 섭리: 하나님은 정상적이고도 자연스러운 양식 혹은 법칙을 가지고 우주를 치리하신다. 이러한 양식은 너무도 질서 정연하기 때문에 종종 자연의 법칙이라 불린다. 그러나 때로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특별한 방법으로 움직이시는데 이렇듯 변칙적인 운행 방식을 보통 기적이라고 부른다. 여호수아의 기적: 해와 달이 멈춤(수10:12-14),

엘리사의 기적: 제자들의 도끼머리가 물에 빠짐, 나뭇가지를 베어 던지니 쇠가 물에 뜸(왕하6장), 창조자이 시기에 가능함(공장 잠시 멈춤)

기적은 항상 생기는가?

성경을 보면 인류 역사에 특정한 사람들의 특별한 권능에 의해 집중적으로 기적이 많이 일어나는 세 개의 시기가 있었음을 보여 준다. (1) 첫째는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에, 약 100년간, (2) 둘째는 엘리야와 엘리사 그리고 초기 대언자들 시대, 약 150년간, (3)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서 사역하실 때와 사도들이 활동하던 시기, 약 70년간

지금까지의 인류 역사는 약 6000년이므로 기적이 발생한 시기는 그중 5% 정도에 불과하다. 예수님도 자신의 지상 생애 동안 약 3년 즉 자신의 삶의 9% 동안에만 기적을 행하셨다. 그러므로 일상적인 삶에서 매일 기적을 기대하는 것은 성경에 맞지 않는다. 그러면 세상이 돌아가지 않는다.

기적의 목적

기적의 본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하는 것이었다. 기적을 말할 때 쓰인 세 단어가 이 사실을 입증한다. 먼저 기적은 '강력한 일'로 불리는데 이것은 행위 뒤에 숨겨진 권능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다. 때로는 기적이 '이적' 즉 '놀라운 일'로 불리며 이때에는 기적을 목격한 자들의 반응을 강조한다. 또 기적은 '표적'으로도 불리는데 이것은 기적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임을 보여 주고자 함이다.

특별히 신약 성경은 여러 경우에 기적을 표적으로 본다(요20:30-31). 특별히 예수님의 기적들은 자신이 메시아임을 보여 주고 사람들이 그분을 믿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 주어졌다. 바울은 자기가 행한

기적의 권능을 빌어 사도의 권위를 실제로 입증하려 했다(고후12:11-12).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진실성을 확신한 것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고 그분을 목격한 증인들이 기적으로 자신들의 증언이 진실임을 보여 주었기 때문이다(히2:3-4).

표적으로서의 기적의 증지

대다수 기적의 취지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 사람들이 신뢰를 갖도록 하는 것이었기에 하나님의 계시가 중단될 때 기적의 선물(은사)도 그쳤고 그것을 행하는 특정한 사람들도 사라졌으며 그래서 역사적으로 기적의 선물은 초세기 이후로는 찾아볼 수 없다(죽은 자를 살리는, 손을 대면 병이 낫는 등). 더욱이 예수님은 기적의 선물을 추구하거나 그것을 위해 기도하라고 가르치지 않으며 오히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그것들을 원한다고 말한다(마12:39).

마귀도 기적들을 일으킨다

마귀와 그의 사역자들은 모방자이다. 거짓 영은 빛의 천사로 좋은 것들과 함께 온다(고후11:14-15). 마24:24,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대언자들은 기적들과 이적들을 사용하여 심지어 선택받은 자들까지도 속이려 하지만 참으로 진리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는다.

특히 마지막 때에는 엄청난 기적들(살후2:9-12; 계13:13-15)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것들만 쫓아다니면 안 된다. 영 분별(요일4:1)

기적에 대한 결론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 그러므로 오늘날에도 기적을 행하실 수 있으며 행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 시대에 지속되는 현상으로서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특정의 개인 즉 기적을 행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주지 않았다. 지금은 누구든지 구원받은 성도라면 은혜의 왕좌에 직접 나아가 그분의 은혜를 구할 수 있으며(요일5:14) 그분께서는 자신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들어 주신다.

그러므로 기적을 보여 주면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것은 동기 자체가 불순함(눅16:30-31). 말씀과 기도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기적들 보고 믿는다고 하며 나왔으나 그분은 그들을 의지하지 않음(23-24)

그들은 기적 자체만 좋아함, 기적의 의미: 메시아, 하나님의 말씀 확증 관심 없음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의지하지 않음, 믿지 않음, 이유: 모든 사람을 아시기 때문에(24)

사람은 연약한 존재 무익한 존재, 영생을 사람에게 의지하다가는 큰일남(사2:22), 창조자를 의지하라.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아신다(이름, 언행).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기록하신다(대하 16:9). 그래서 투명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아심, 증언 불필요,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심(25)

시몬 베드로(1:42), 나다니엘(요1:46), 수가성 여인의 모든 것(4:29), 유대인 지도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음(5:42), 가롯 유다가 진정한 제자가 아니다(6:64). 간음한 여인의 회개(요 8:10-11) 등.

여호수아기 7장의 아간을 보라.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신다.

행5장의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보라. 하나님은 아신다.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길은 2.4m 혹은 사람의 키, 사람 속은 천 길 물속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

사람의 마음 예레미야(렘17:9-10). 하나님은 마음을 시험하신다(히4:12-13).

바로 이 마음속에서 온갖 악한 것들이 나온다(막7:21).

예수님 등장, 기적들 보임, 백성들 환호, 인기가 높음, 쫓아다님

그런데 그분의 말씀들을 듣다 보니 그것들이 가슴을 파고 들어옴, 도저히 부인할 수 없음

이대로 나가면 지옥 불의 정죄가 확실함. 결단을 내려야 함: 회개 혹은 거부, 중간은 없다.

결국 기적들을 따라 다니며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던 자들이 결국 양심의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하고 외침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중간은 없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 중간은 없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사기꾼인가, 거짓말쟁이인가, 미치광이인가, 아니면 참으로 하나님이신가?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정말 우리는 예수님께로 돌아선 사람들인가? 목사는 모른다. 심지어 남편과 아내도 모를 수 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신다.